

‘닫힌’ 세상에서 ‘열린’ 세상으로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옥중서간의 세계

옥중서간집은 타락한 권력에 맞섰던 인류양심의 소산이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치열한 정신이 담긴 ‘양심수’ 들의 편지에는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 열린 세상으로 보낸 메시지의 주제는 놀랍게도 ‘희망’ 이었다. 극히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편지가 책으로 활발히 간행된 이유가 여기에 있을 법하다.

책과 편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감옥’에서 책과 편지는 더욱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정황은 옥중서간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독서는 “독방에서 시간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큰 즐거움”(《서승의 옥중19년》)이다. 수인에게 읽을거리는 “열려진 세상으로 통하는 가냘픈 통로”에 해당하는 편지를 매개로 전달된다. 또한, 이른바 ‘양심수’의 편지는 책으로 묶인 예가 많다.

옥중서간의 전형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서간》(고범서, 대한기독교서회)에도 책과 편지가 맺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가 잘 나타난다.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독후감과 책 읽기의 권유, 그리고 책을 구해달라는 부탁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컨대 “저는 19세기에만 집중해서 독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는 고트헬프와 슈티프터, 임머만, 폰타네, 켈러를 읽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본회퍼는 자신의 독서체험을 근거로 부모에게 고트헬프의 《베를린 사람의 기절》을 꼭 읽으라고 당부한다. 새로운 책을 요청하기도 한다. “폰타네의 것을 무언가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에니 트라이벨 부인》 《미로》 《슈테히린》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꽤나 익숙한 사연이다. 《김대중 옥중서신》(청사)을 필두로 한 국내 옥중서간집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대목이다. 차이를 바라는 책 이름만 다를 뿐이다.

본회퍼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다. 《옥중서간》은 그보다 세 살 어린 조카 사위 에버하르트 베트게가 엮은 것이다. 본회퍼는 조카 딸의 결혼식을 옥중에서 맞아 ‘결혼식을 위한 설교’를 서신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것은 또 1980년대 후반 재야운동가 장기표씨가 수배 중에 안집 주인 딸의 결혼선물로 준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의 원조로 볼 수 있다. 이래저래 히틀러의 ‘광란’에 저항하다 순교한 신학자 본회퍼의 편지 모음은 옥중서간집의 전형이다.

독자적인 고전이 된 책도 있어

옥중서간집의 테두리를 넘어 고전의 위치를 굳힌 책이 있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이 그것으로, 이 책은 요즘 역사입문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하지만, 본래는 네루가 역사와 인생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려고 외동딸에게 보낸 편지다. 예컨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겪어 보고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라거나, “지식을 취하기에 앞서 그 지식을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구절은 그런 ‘용도’를 능히 짐작케 한다. 1982년 출간돼 대학가를 중심으로 널리 읽힌 ‘석탑판’ 《세계사편력》(축약본)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는 도서출판 일빛이 펴낸 두 종류의 책이 새로운 세대의 독자와 호흡하고 있다. 1995년 출간된 세권짜리 《세계사편력》은 완역본이다. ‘석탑판’의 역할은 《중고생을 위한 세계사 편력》이 대신하고 있다.

《세계사편력》처럼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그림시의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될까》(공동체) 역시 자식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것이다. 여기에는 8편의 동화가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예는 우리에게도 있다. 장의균의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힘)에는 16편의 창작동화가 실려 있다.

옥중서간집은 제목만으로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김근태의 《열려진 세상으로 통하는 가냘픈 통로에서》(한울)와 서준식의 《모래바람 맞은 영혼》(형성사)이 은유적 표현을 통해 책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면, 경제학자 유인호의 《좁은 공간 긴 사연》(양서원)은 단시(短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제목의 비문(非文) 시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나 제목에서나 옥중서간집의 표본이다. 햇빛출판사의 텍스트는 절판됐고, 이제는 증보판(둘째)으로 만날 수 있다.

— 최성일 기자

